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여름공동체생활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설교와 성서일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25일까지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 모든 모임과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7 호
2021년 7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대만에서 온 선교 편지

대만은 이례적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5월 중순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만 남부지방의 모든 저수지들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사는 물론 식수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학교수업이 중지되고, 교회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소식

사역지인 린즈내 교회와 영성수련관에는 현지 목사님과 예배, 행정, 지역아동을 위한 방과후학습반 교사, 관리, 식당 등에서 사역하는 9명의 가운데 '아롱'이라는 지적장애인 형제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앓았던 열병으로 지적 장애인이 되었고, 주위 사람들은 물론 가족에게서조차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동네 바보로 살았습니다. 십여 년 전쯤 수도 타이페이 농민 행사에 동네 어른들을 따라갔다가 길을 잃고 기진해 있는 아롱형제를 현재 린즈내 교회 목사님이 타이페이까지 올라가 이들을 헤매다 기적으로 아롱형제를 찾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과 교회와 영성수련원 사역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올 초 몇 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아롱 형제와 제가 영성수련원 채소밭에 심겨진 채소들을 살리려고 수련원 허드레 물을 저장하는 수조에서 물을 길어 채소밭에 물을 주는 일을 한동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평균 낮 기온이 섭씨 38도, 한두 번 물을 길어 올려 채소밭에 주고나면 걸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저에게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한 동이를 여러 채소 뿌리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덥고 힘이 들어 채소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보다 그저 채소밭에 물을 주는 일을 빨리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아롱형제가 내가 땅만 적셔준 채소뿌리위에 말없이 다시 물 한 동이씩을 부어 주

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했다는 흔적을 다 자신에게 남기려고 했고, 아롱형제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가는 채소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롱 형제와 일 년 이상을 함께 했습니다. 자신이 나보다 잘 하는 일이 다 반사여도 어떤 일이든 먼저, 열심히, 성심껏 합니다. 사람들이 아롱형제를 지적장애인으로 대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흔적만 남기려는 효율? 적인 것에 학습되고 익숙해진 제가, 채소 한 뿌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는 아롱형제와 함께 있으면 정작 장애인은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미 아침부터 땀에 젖어 잡초를 뽑고 있는 아롱 형제와 같이 있으면서, 지금 내 삶의 시간은, 좋은 곳,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 좋은 것을 배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제목:

1. 린즈내교회와 영성수련원(심령의 고향)을 섬기는 형제자매들의 몸과, 영혼에 힘주시어, 이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2. 린즈내 교회와 영성수련원을 통해 대만교회의 영적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 2021년 10월 다시 받아야 하는 대만 선교사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만에서 노효종 · 김희정 선교사

한주간 말씀

“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
<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히브리서 12장 1-13절

제목 :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49 342 149 246 322 320

1-3 : 예수를 바라보자

해석 :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평판이 있어도 달음질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한다.

적용 :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구약의 인물들, 예수)을 보자.

4-11 : 거룩하심에 참여하자

해석 : 훈계는 중요한 것, 핵심을 가르칠 때 강조하기 위해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다.

적용 : 훈련받은 사람으로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자.

12-13 : 똑바로 걷자

해석 : 환난, 핍박, 고난, 유혹, 비판이 있어도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라.

적용 : 주변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함께 걷자. 예배, 모임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자.

영적인 성도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우연한 상황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뜻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영적인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룬 일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그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먹든 마시든 제자들의 발을 씻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는 예수님의 생애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천한 일에서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13:3-5)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분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때에도 종종 그 섬기는 동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결단코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1일.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84 : 1-4 인도자
2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b 인도자
40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히브리서 12 : 5 - 11 설교자
446 사랑방
“ 훈련과 예방(백신)을 감사하십시오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45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상득 백성복 / 봉헌위원 : 최상득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동기도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저희의 믿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훈련과 예방(백신)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내용은 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권면을 잊었습니다<5-6>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 자녀입니다<7-9>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10-11>

고난은 훈련과 예방의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11> 즉 고난의 의미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미래의 고난을 예방(백신)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훈련과 예방(백신)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아니라 훈련과 예방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특별히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해석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백성복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뜨거운 햇빛이 내리는 여름입니다. 꾸러기들은 여름이 되면 항상 더위와 씨름을 하는데 곳곳하게 여름을 이겨냅니다. 여름은 덥고, 땀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는 어른들도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데 우리 꾸러기들은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우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지만 그래도 작은 몸으로 더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꾸러기들 정말 의젓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꾸러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는 바로 '탐포'입니다. 탐포는 변형된 술래잡기 이름인데 집을 칠 때 이름과 함께 탐포라고 외쳐서 꾸러기들은 탐포라고 부릅니다. 무더위를 뚫고 공동체를 한 바퀴 돌며 꾸러기 발을 가꾸고, 돌아오는 길에 탐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게져도 그 안에는 즐거운 미소가 있습니다. 술래 몰래 집에 가기 위해 더위를 뚫고 전력질주를 하는 꾸러기들의 열기는 여름의 무더위 보다 강합니다. 다음 날에는 학교 안에서 탐포를 했는데 어린이학교 1학년 선배들과 탐포를 해서 더 즐거워했습니다. 1명도 못 잡던 5살이 모두 1명 이상은 잡는 이변을 보여주며 1학기 마지막 탐포를 즐겁게 마쳤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급하게 대면 수업을 마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지만 이후에는 방학 전까지 아침에 비대면으로 모임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꾸러기들이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이번 주 어린이학교는 피드백으로 지낸 한 주였습니다. 각 학년별, 통합반별로 피드백을 진행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시간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배움과 가르침

을 보며 그렇게 살지 못한 어른의 삶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경청해주고 대화하며 관계 맺는 아이들의 삶이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규확진자가 늘어나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린이학교도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1학기 학부모 면담도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분들만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가 힘든 시기가 평안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등교 후 매일 개인 연습과 전체 리허설을 반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종강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 사이사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명씩 차례대로 기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계획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종강 발표회 후 예정에 있던 종강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늘 여행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했던 터라 멋쟁이들과 교사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위로하듯 학부모회에서 특별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시 힘을 얻어 종강 발표회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모양으로 멋쟁이학교를 위해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장성아 >

나누며 누리는 것들 - 어린이학교시절 예찬이 이야기

며칠 전에 누가 옷 보따리를 가져다 놓았다. 아이 생활한복이랑 여름바지 몇 개를 정갈하게 개서 현관 입구예다 놓은 것을 예찬이가 들고 오면서 “엄마, 이거 정흠이형것 같아. 정흠이형 냄새나~” 아이는 신기하게도 옷 냄새를 맡고 누구 것인지 거의 맞춘다.

아니나 다를까 정흠이네서 온 옷이다. 한복이 깔끔하니 좋다. “시원해 보인다. 입어 봐~”

아이는 입어왔던 옷마냥 빨래한 옷 같아입듯이 입어본다. “넌(한복입는 날) 입고 갈래?” “예스,맘(기분 좋을 때 영어로 대답한다)” 하고 어깨를 으쓱이며 웃는다. 좋아하는 형 옷이래서 더 마음에 드나보다.

이제껏 예찬이에게 옷을 사 준 적이 별로 없다. 속옷과 양말은 더러 사줬는데 속옷과 양말도 형들에게서 물려받은 게 사 준 것보다 더 많다. 팬티를 깨끗하게 삶아서 곱게 잘 개서 주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물려받는 것들이 사 준 것보다 모양이나 질이 더 좋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거의 다 아는 사실이다. 양말도 마찬가지다. 길이 들여진 것이라 새 제품에서 나는 화학약품 냄새가 안 나고 사람 냄새가 나서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물려주는 것에는 마음이 없으면 주기가 쉽지 않다. 예찬이도 작아진 옷은 정리하면서 좋아하는 동생들을 떠올리고 “이거 진이 줄까? 주안이 줄까?” 한다. 어릴 때부터 많은 형아들에게서 물려받을 때마다 “이거 누구형아 옷이야?” 곧잘 물어봤다. “제호형이 준거야, 한결이형거야, 진오형거야, 이서형네서 온 거야” 할 때마다 아이는 “야!~ 제호형이다!~ 한결이형이다!~ 진오형이다!~ 이서형이다!~”하면서 보내준 사람을 좋아했다. 글자도 옷 뒤에 쓰인 형들 이름을 살펴보면서 알아갔다. 좋아하는 형 이름이래서 금세 알 수 있고 그 옷을 입어서 더 좋고!~ 이렇게 마음까지 실어서 물려주는 것들은 마음까지 오는 것이래서 귀한 선물 받을 때처럼 뿌듯하다. 이런 맛은 새 옷을 사 입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안됐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멋진 맛을 모르고 살테지??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히브리서 11장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리톤의 주민들을 위해>

캐나다의 리톤은 7월에 50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엄청난 덥친 격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250여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마을의 90퍼센트가 불타버려습니다.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리톤 마을의 주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민들레 공동체 기도제목>

- 1) 민들레 대학이 신입생모집과 재정이 든든해지도록
- 2)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계속 되도록
- 3) 공동체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공동체학교 종강>

공동체 학교의 안전한 종강을 위해
주일예배를 통해,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주초에 장마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사뭇 긴장하면서 주변 정리를 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걸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중부 지방으로는 크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내리는 소낙비가 더위를 씻겨주지만, 무더운 날씨가 한 주 내내 계속 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사랑방공동체 학교에서는 먼저 앞서서 조기방학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멋쟁이학교 종강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학기를 큰 탈없이 지내준 멋쟁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학교와 어린이학교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다음 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학교들이 안전한 가운데 1학기를 종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